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1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9월 8일 (제706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정박해 있는 배가 될 것인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거친 바다보다는 방파제로 둘러싸인 항구에 머무는 배가 안전하다. 그렇지만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배는 거친 바다를 헤치며 달리라고 만든 것이다. 그럴 때 그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답다.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할지 몰라도 그 배는 쉽게 망가진다. 바다를 항진하다 물에 젖고 바위에 부딪쳐 생기는 배의 상처는 고칠 수 있지만, 항구에 정박한 배는 손댈 수 없다. 다 삭아버리기 때문이다.

간혹 우리는 태어난 목적을 잊고 살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창 1:28). 이는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모험하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배를 포구에 정박해놓고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좌초되고, 침몰할까 봐,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도전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침상에서 구르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배가 낡아져 폐선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뇌도 육체도 낡아져 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일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다.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패한 자는 일을 하다 집시를 깨뜨린 자도, 도전하다 넘어진 자도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자다. 낡아서 없어지느니 써서 없어지는 쪽을 택하라. 파도와 싸우다 낡은 쪽이 낡다. 일하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쪽이 낡다.

항구에 머무는 배가 되지 말라. 그것은 무가치한 삶이요, 무기력한 삶이다. 만선의 소망을 안고, 거친 바다와 싸우고 항진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는 배가 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전쟁위기는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폭주기관차처럼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 대해 중국조차 염증을 내고 있었기에,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가했던 공세적 군사조치를 북한에 하지 말란 법도 없는 터라 그야말로 한반도 전쟁위험수위는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당

에 외침이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소집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전쟁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들간 계속된 기도대성회는 분명 보이지 않는 외침이었지만, 이후 개성공단 폐

유사 이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진화의 대역사를 이루어냈다. 그 무엇하나 거저 얻어진 것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역사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세력들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엄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일제의 역압과 공산세력의 위협, 그리고 폭압적 권



우리는 쉬지 말고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부천집회 광경)

시 외신들은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며 취재진들을 한국으로 대거 급파하는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국내 분위기는 너무 차분하여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전쟁불감증을 거론하기도 했었다.

바로 그 때, 우리 교회가 분연히 일어섰다. 당시 필리핀 집회 중이시던 목사님은 필리핀 지교회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하여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셨다. 당시 목사님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장로님들과 함께 단에 올라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다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셨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전쟁의 잣대미 위에서 피와 눈물로 세운 이 나라가, 이 아름다운 강산이 주변열강의 신무기 시험장, 재래식 무기 폐기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쟁은 일체의 희망을 앗아가는 참혹한 대암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왜까지 치달았던 이 땅의 위기는 늘 북한 편들기에 앞장섰던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면전환은 북한의 태도변화로 이어지더니 점차 남북대화 기조의 복원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의 수순으로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가 터지며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확실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의 억압과 3년의 미군정을 거치는 동안 호전적인 공산세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앞세운 자유 대한민국으로 수립되었고, 그 후 6.25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첨병으로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력에 대항하여 피 흘려 싸우며 지켜온 나라이다. 우리 후손들이 세대를 넘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누리며 지켜가야 할 나라이다. 불의와는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기도하는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은 결코 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서는 안 된다.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다. '괴산군의 경성함이 허사' (시127:1)라고 성경도 말한다. 딱정벌레 하나가 거목을 쓰러뜨리고, 지극히 작은 누수가 댐을 붕괴시킨다. 깊이 유념할 일이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이다.

Henry
henry8829@naver.com

2013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강사: 이초석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밤 7:3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5:29~30)



평안하려면 암적 존재를 제거하라

암(癌)이란 '삼구괴물'이라고도 합니다. 암의 한자를 보면 입(口)이 세 개 있어 닥치는 대로 무조건 먹어치우니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괴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암도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단체를 힘들게 하는 암적 존재, 암적 요소도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제거할 때 어설픈 제거하면 다시 재발하여 온몸으로 전이됩니다. 암적 존재, 암적인 요소 역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미는 놔두고 거미줄만 거둬내는 꼴이 됩니다. 먼저 국가의 암적 존재를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요즘 국가전복이니 내란을 모니 하며 메스컴을 달구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를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국가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국가 없는 민족은 국가 있는 개새끼보다 대접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해치려는 암적 존재와 요소는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암적 요소는 바로 불량품입니다. 이것도 근절시키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되거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삼성전자의 '애니콜 신화'는 바로 1994년 '애니콜 화형식'이라는 극악처방, 불량품의 뿌리를 뽑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판매해온 핸드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히 12:15~16).

제 둘째아들이 어릴 때 거짓말을 하다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넋 달 동안이나 아들과 말을 안했습니다. 집에서 얼굴이 마주치면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후에 아들 녀석이 차라리 맞는 게 나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아들에게 거짓말은 암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



입니다. 목회 9개월에 성도가 500명이 되었습니다. 살

지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슬쩍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저는 제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있는 암적 요소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 초강수를 두신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는 말을 늘 교훈 삼고 있습니다.

발본색원(拔本塞源)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까지 뽑아야 자라지 않고, 흐르는 물은 물길의 원천을 찾아 메워야 다시는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잔디에 있는 잡초를 뿌리째 뽑아야지, 아니면 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전쟁을 명하고는 남자는 다 죽이고 아이들 중에서 사내아이는 죽이고 사내를 안 여자들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는 혹

시 그들 중에 미디안 혈통을 이을 사내를 임신한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남파 아이들을 살려두면 반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들은 모세의 말을 어기고 여자들을 살려왔습니다. 모세는 대노했습니다. 죄의 씨를 완전히 자르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철저히 멸절시키지 못함으로써 훗날 다시 세력을 규합한 미디안 족속에 의해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삿6~8장). 이처럼 죄악 된 요소를 철저히 근절하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

다. 껍질 안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껍질 안의 전체 사과가 썩습니다.

다. 이럴 때는 썩은 사과를 얼른 빼내야 합니다. 이것이 '썩은 사과 이론'입니다.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찢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는 말씀은 영적인 암적 요소가 발견되면 뿌리까지 뽑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의 저해 요소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3:8)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숨지 말고 대항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세상이 병든 겁

불의에는 양보가 없다 의를 위하여 싸우라

니다. 불의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해묵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음하고, 그와 재혼했습니다(막6). 모세의 율법에는 형제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것을 명백한 간음행위로 간주했습니다(레18:16). 분명히 해묵이 죄를 짓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묵이 두려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해묵의 궁을 찾아가 그의 부정을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죽이고 맙니다.

불의와는 타협도 있을 수 없고, 용납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으며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의를 참으면 악이 성행하게 됩니다. 의(義)를 위하여 의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고, 곧 법과 질서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열 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불의와 맞선 열 명의 의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창18:32). 또 이세벨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말씀하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이 있다." 그들이 일어나 다시 악과 싸운 것입니다(왕상19:18).

외적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내적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부의 암적 존재와 암적 요소를 근절해야 국가와 사회와 단체와 가정이 삽니다. 고름이 살아 되지 않을 터, 뿌리까지 잘라내어 평화로운 삶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 악은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전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 후로 품질혁신은 물론 초일류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일찍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염여를 잘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이 암적 존재라,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못 살겠다고 하니 신학교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빼냈더니 다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도 암적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시경을 밝혀 암적인 요소가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잘라내야 합니다. 썩은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잘라내야 하고, 게으름, 거짓과 위선, 음란 등 세속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이 땅에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안보와 경제

인류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는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이나 1917년의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의 원인을 깊이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 빵의 문제에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물론 불안한 사회체제의 변혁에 불을 땀기는 사실이나 이론들이 등장하고, 사회의식의 변화라는 도도한 흐름이 크게 자리를 잡게 되는 순서를 밟게 되지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정권은 배요, 백성은 바다와 같아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배는 난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이 출렁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다. 절대 권력의 유지에만 골몰하던 유럽의 구제제는 백성의 삶을 도의시하다가 그 백성의 힘에 무너지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이 삶의 희망을 상실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골몰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 하겠다. 미군이 미국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국가안보의 첨병이라는 단순한 가치에서뿐 아니라 미군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명예와 자부심이 미국 시민 전체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제주의에 맞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켜냈다고 자부하는 2차 세계대전의 승리나 각국의 분쟁에 개입하여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자부심 말이다. 물론 그 평가는 각국의 입장에 따라 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시민들이 자국 군대에 갖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들은 정부를 전복하는 쿠데타를 모의한 적도 없고, 자국민에게 총부리

를 겨누는 적도 없다. 오로지 미국 시민의 보호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무장한다고 굳게 믿는다. 군대는 자국민과 영토를 지키며 국가정체성의 보루라는 명예와 자부심이 생명이다. 따라서 그러한 명예로운 군대의 자부심은 첨단무기보다 더욱 중요하다. 6·25전쟁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군에 비해 극도의 열세라는 헨리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피로써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국민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북한 김일성은 남침하여 수도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 각지의 빨치산과 남로당 지하세력이 봉기하는 가운데 삼시간에 남한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오만했다. 그러나 전쟁 전에 정부가 단행했던 숙군(肅軍)작업과 토지개혁은 김일성이 믿었던 남한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가안보는 건강한 중산층이 두터울 때 절로 담보된다.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할 나라는 인식이 국민 대다수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는다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힘을 합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 불법과 부패가 난무하고, 성실한 삶보다 편법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사회안전망이 파괴되고, 사회불안이 가중되어 그 나라의 외부의 공격이 있기도 전에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 법과 질서의 유지, 이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내 자식만 살핀다면...

전철을 타고 가는 길이었다. 출근길처럼 북적대진 않았지만 앉을 자리가 없이 소란하다. 뻥뻥거리며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이 모두 그 아이에게 쏠려있다. 그래도 엄마는 우는 아이를 달랠 뿐 속수무책인 모양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한 엄마가 갑자기 짚을 듯 밖으로 쏙 꺼내더니 우는 아이의 입에 물리는 것 아닌가! 금세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열심히 짚을 빨아댄다. 눈물이 눈 속에 그렇게 찬 채로 짚을 맛나게 빠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번진다. 그런데 아까 그 아이는 여전히 울어댄다. 점점 소리가 높아가다 급기야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댄다. 하도 답답하여 보다 못해 한 노인이 말했다. “이봐요. 아기한테 좀 짚을 물려 봐요. 배가 고파서 그런 모양인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짚을 물려요. 좀 있으면 내려요. 죄송합니다.”

“글쎄, 저 엄마 좀 봐요. 짚을 물리니까

아기가 금세 울음도 그치잖소.” “그래도 교양이 있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자 노인은 아기에게 짚을 물리고 있는 엄마에게 물었다. “애기 엄마는 보아하니 인텔리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훌쩍훌쩍 잘도 내놓습디다.”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 자식이 우는데 짚 먹여야죠. 교양은 무슨...”, “올라. 내 자식이 배가 고파 우는데 무슨 체면인가? 우리의 아비, 어미들이 그런 체면, 염치 찾았으면 오늘날 같은 발전은 불가능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등짝을 맞으며 온갖 수욕을 당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까지 인내하셨다. 더 높은 가치와 목표를 위해 나를 이기는 자가 참 성공자다.”

예수중심편집실

기름칠을 해야 기계가 잘 돌아가듯 인생에도 기름칠이 필요하다.



::성경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남의 말에 चु추지 말라

아들아!

이런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라. 내가 교회 안내위원장에게 모두 반장례식장에 올 때 안내위원들 모두 빨간색 베타이를 매고 오라고 전화했다고 하자. 전화를 받은 안내위원장이 안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빨간색 베타이를 매고 오라’고 한다 고 하니까 안내위원들이 하나 같이 다 ‘장례식장에 웬 빨간색 베타이냐’며,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검정색 베타이 매야한다’고 했다. 듣고 보니 안내위원들 말이 맞거든. 그래서 안내위원장이 ‘그러면 다 같이 검정 베타이를 매자’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모두 검정 베타이를 댄 안내위원들을 보고 내가 뭐라고 할 것 같니? ‘역시 대단한 안내위원들이군. 품격 같이 말해도 찰떡 같이 알아듣는 군.’ 그 했을 것 같니? 아니지. 나는 안내위원장더러 ‘네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고 추궁할 거란다.

아담은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6~17)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하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호들갑을 떨며 ‘여보, 여보!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이 우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날 봐. 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나. 그러니 당신도 먹어봐.’라고 했단다. 아담이 보니까 정말 아내가 멀쩡하거든. 죽기는 커녕 더 팔팔하거든.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하고 생각했지. 그리고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었지. 인류에게 죄가 잉태된 순간이지.

어디 그 뿐이니?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고 여로보암의 유혹을 거절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그는 가는 길에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다. 그런데 가장한 늑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당신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라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단다. 이

에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놓고 왜 속아서 여호와와 명령을 어겼느냐?”(왕상13:21)고 노하시며 그에게 징계를 내린 일이 기록되어 있단다.

아들아!

내가 들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니?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독자를 재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다. 그런데 그 중대한 일을 그는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지. 왜냐고? 자기가 들었거든. 만일 아내에게 말하면 분명히 “당신이 잘못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런가?” 하고 흔들렸을 지도 모르지.

나도 ‘귀신을 쫓고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란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란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남의 말에 चु추지 않는 것이란다. 朋友

며칠 전,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슬로터라는 한 시골마을에서 8살 남자 어린이가 집에서 90세 된 자신의 할머니를 총으로 쏘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그날 저녁 비디오게임을 즐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아이가 한 게임은 총으로 사람을 죽이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마친 지 불과 몇 분 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자기 친할머니의 뒤통수에 실제 총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아이의 변호사가 ‘이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어린이가 의미도 모르고 무의식중에 접한 것이 잔인한 비디오게임이 아니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모삼천(孟母三遷), 근목자축(近墨者黑)이라는 사자성어는 모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을 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단이 잠고 있는 자극적인 세상 문화로부터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계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제 인생은 1992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마당조차 밟아 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던 질책을 하며 담배엔 담배, 술이면 술에 들쭉거리던 서러를 정도로 피고 마셨던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초, 갑자기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 자석에 이끌리듯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제게 한 성도님께서 어떤 비디오텍스 테이프를 보라며 주셨습니다. 흰 양복을 입고 귀신을 쫓으며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반해 그때부터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예수중심교회입니다.

당시 저는 방언기도가 무엇인지도,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완전히 초신자였습니다. 예수중심교회를 간 첫날,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나라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저러한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 말만 반복하며 매일 세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일예배에 갔더니 총회장 목사님께서 방언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시기에 얼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따라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값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능력에 기도의 물을 주며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저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손끝부터 척추, 허끝까지 타고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최면술이거나 짜고치는 거겠지 하며 의심부터 했었는데, 제가 뜨겁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 모든 것이 믿어지고 감사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 '마태복음 7장을 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성경을 펼쳤더니, '비관하지 말라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스스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비판해왔고, 제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미워했고 욕했던 것이 깨닫아지고 회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회개가 시작되자 초등학교 때 지는 죄까지 낱알이 기억이 나면서 모든 게 다 회개 되었습니다. 그 날 밤, 회개를 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홀연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판대를 중심으로 양 옆에 지옥으로 가는 문과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술하지만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첫 번째로 본 것은 깊고 어두운 남퍼리지였습니다. 그 남퍼리지의 물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고, 그 곳에서 우리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본 곳은 불구덩이였습니다. 가스레인을 켜고 불이 켜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콩 튀기 듯 뿔겨지며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은 물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 물 없는 개울이었고, 그 곳에서 저의 옛 친구를 보았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도망치려고 하자, 한 분이 저를 가로막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오 예수여 찬양을 아느냐, 오 예수여! 찬양을 따라 부르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따라 불렀더니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보니 그곳은 아래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강이 보이고 천국으로 가는 밝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오 예수여!'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 땅에선 가히 들을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 능력에 기도의 물을 주며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넘치는

은사와 축복을 받고도 사업을 시작한 후 바빠지다 보니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천사들이 와서 톱이며 망치며 목수들이 쓰는 연장들을 가방에 다 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애써며 때써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들이었습니다. 받기는 어렵게 받았으나 잃는 건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목사님이 선포한 NEW START(뉴스타트)처럼, 새롭게 다시 제대로 주의 일을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와 저녁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1일 작정 금식기도의 감동을 받아 여러 고난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내 이겨내고 나니, 21일째 되는 마지막 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해 줘서 고맙다. 내 아들아, 나를 힘들게 따라와 줘서 고맙다.' 하는 따뜻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심을 느낍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오로지 주님 편에서 서서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김경환 장로

글: 신은혜

::Edu Section::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하는 이유

딸이 유년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일등을 하면 자원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아빠에게 밤낮으로 조르는 것을 보았다. 전도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의 정의도 모르는 아이는 자원자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다. 딸의 득달같은 보함에 아이의 아빠는 친구들을 한자 가득 태워서 교회로 갔고, 그날 자원자를 손에 쥐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던 어린 딸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 날 이후 오래도록 딸아이는 친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거나,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유년의 시절, 전도의 참된 뜻과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자원자를 상으로 받았다면 어땠을까?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도 영혼의 소중함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자녀로 양육시키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영혼구원에 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관한 양육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린 결론은 말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로 했다.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교회가자'라고 말하기 앞서 친구의 마음 문을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며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왔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법을 실천으로 옮겨왔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봤고, 속옷을 달래면 겹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의 내면을 친구 보는 친구의 눈길을 느꼈다. 바보 같은 내 모습은 친구의 영혼의 문을 두드렸고 어느 날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영접하는 나와 친구의 모습을 딸은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딸아이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

야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영혼을 노크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딸은 친구의 부모님들이 아파서 입원해 계신 병동을 찾아다녔고, 곤란에 빠진 친구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벼들의 영혼을 노크하고 있다. 언젠가는 그녀들이 딸과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에게 영혼의 소중함과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알게 해주기 위한 가장 소중하고 실천적인 말씀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이라고 믿는다.

상대방을 위한 진실이 담겨진 최고의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하는 기독교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사랑을 자녀에게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보자.

오자유

oh free@hanmail.net

약서(聖書)는 지적인 독약으로

읽는 사람을 독살(毒殺)한다

그러나 양서(良書)는

지나 몇 세기 동안에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